

※※※※※ < 論 說 > ※※※※※

웨슬레의 神觀

정 신 경

웨슬레의 신학과 그 근본 사상은 대체로 영국교회의 39개 신조(信條)에 의거하였으며 그는 이것을 25개조로 축소하였다. 그의 신관도 역시 여기에 근거를 두었다. 그는 신관에 있어서 다른 신학자들과 별한 차이를 말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유일무이 하시며 영원하시고 무형무상의 영적 존재로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만물의 창조주 이시며 섭리자 이시다. 이 유일신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Zóros) 즉 영생의 신으로서 성부와 동일한 실체이며 처녀의 몸에서 나서 인성을 가지셨고, 신인(神人) 양성을 서로 나누지 못하게 완전히 가지신 분이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였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분이시다.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서 실체의 영광이 꼭 같은 영원한 신이다. 그러면 위에 말한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으며, 또 그분의 본성은 무엇이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물 섭리하시고 제신가에 대한 웨슬레의 설명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1.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웨슬레는 하나님을 아는 두개의 길을 제

시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이성이다. 그러나 그는 자연신교 신봉자들의 이성에 대한 지나친 주장을 배격하였고 또 이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신비주의자들에게도 반대 의 입장을 취했다. (Works, Vol VI p. 351)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성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즉 이성은 세가지 중요한 기능을 이행하는 인간 영혼의 능력이다. 이 세가지의 기능이란 이해력(apprehension)과 판단력(judgment)과 토의력(discourse)이다. (Works, vol. vi, P353). (cannon P. 158). 웨슬레가 말하는 이해력이란 사물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행위이다. 판단력이란 어떤 사물들을 인식하기 전에 그것이 서로 일치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토의력이란 사물을 판단하고 또 다른 것을 판단하는 마음의 동작 혹은 발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웨슬레는 이성이 종교의 영역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할수 없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역할(役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웨슬레는 계시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통로가 바로 이성 이라고 말한 바울러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종교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루어 있으며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필요

불가결의 도구이다.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게 하며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한다.

이성은 회개신앙 중생 성화 궁극적인 구원 등 그리스도인의 생활교훈을 이해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사 안내자로 삼게 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의 명령을 실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해력을 이용함으로써 만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범죄함이 없는 양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성은 기독교 진리의 내용을 제공할 수는 없다. 즉 이성은 신앙을 낳을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명확하고 만족할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또 이성은 자신(自信)과 신뢰를 고취하는 소망을 낳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낳을 수도 없다. 고로 이성은 믿음의 하나 즉 계시의 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이성 너머의 계시(啓示)다. 웨슬레는 자연주의 신봉자들의 자연주의 적이며 합리주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만이 기독교 신앙의 종교적인 기초가 된다고 확언한 버틀러의 주장을 찬성하였다. 즉 계시는 신학의 개념들을 정의하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에게 나타남에 있어서 그 진리를 인간 자신의 이성의 힘만으로 보기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로 웨슬레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계시를 일종의 계시와 특수경험으로 분류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계시와 불완전한 계시를 구별하여 계시의 본질을 논하였다. 그는 계시를 일종의 계시로 보았다. 그는 계시를 일종의 계시로 보았다. 그는 계시를 일종의 계시로 보았다.

이성을 의미하며 특수계시는 일반 계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속죄의 목적에 관한 계시다.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웨슬레는 계시의 세 단계 즉 비인격적 자연을 통령시 된것, 특수한 의미에서 자연을 초월한 인격적 존재를 통령시 된것, 그리고 최후로 수육(受肉)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령시 되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고로 인간의 영성(靈性)이 하나님의 특수계시의 무대가 됨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간성은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기관이다. 그리고 이 계시의 원천(Primary source)은 어디까지나 성서라고 주장하였다. 웨슬레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은 선한 사람이나 천사들이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나 악마들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발명해 낸 것에 틀림없다. 고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웨슬레의 결론이다. 결국 웨슬레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라는 진리에 관해서 종교적인 지식을 주어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된다고 말하였다. (Cannon P. 160) 따라서 그는 계시의 원천인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은 필요한 도구가 되며 이 진리의 객관성을 주관화 하기 위하여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하나님의 본성(The Nature of God)

첫째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시다. 웨슬레는 삼위일체 이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그의 설교에서 자칭어 누구에게도 「삼위일체」(Trinity)라는 말이나 용어(Person)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강조하지는 않았다. 또 삼위일체의 교리에 어떤 특정한 해석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웨슬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를 설명하려 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좌표를 못잡게 되며 길을 완전히 잃어 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웨슬레는 신적인 증거에 의거하여서만 삼위일체의 사실을 믿으나 그것의 방법(Manner)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바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들에게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마저 기절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제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며 성령이 하나님이며 성부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Cannon P. 161)

둘째로 웨슬레는 하나님의 본성을 영(Spirit)이시며, 빛(Light)이시며, 사랑(Love)이시라고 설명하였다.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사랑과 성결에 있어서 영으로 충만하시며 아무것도 섞임이 없는 참빛이시다. (요한 1서 1:5)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그는 품평하신 하나님 이시다. (행 10:24)

셋째로 하나님은 창조자(Creator)이자

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절대적지(Sovereign will)에 따라서 역사하시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동하신다.

3. 하나님의 섭리 (Divin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 일뿐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통치자(Governor)로서도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에서 떠나시는 일이 없으며 그의 손으로 우주의 과정을 지속시키시며 그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의 요구에 응할 수가 있다는 확신을 웨슬레는 믿음으로 획득하였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으며 행운이라 함은 섭리를 우미하는 또 하나의 명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철저히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중에 이르는 큰 단계가 된다고 웨슬레는 1791년 1월 2일 자기의 누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존재의 어느 측면에나 적용받지는 곳이 없다. 웨슬레는 1736년 7월 20일 그의 일기에 「어떤 사람이 북아메리카에 살던 파우수루비(Paustoobee)로인의 추산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대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그대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 보았을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전장에서 불란시 사람과 싸우고 있을때 총알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날아왔고 이쪽 사람이 죽어 쓰러지고 저편 사람이 맞아 쓰러졌으니 나는 아직 살아남아 있으니 이로써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심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그는 섭리의 범위를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범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들어본 인이 없는 족속은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족속이 다 포함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심은 공기나 태양광선 같이 만민에게 미친다. 둘째로 보다 적은 범위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자 불리우는 사람들이 속한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의 빛을 보내 주신다. 그들에게는 암흑의 권세가 이교도의 세계에 비해 꼭 같은 의미로 혹은 꼭 같은 정도로 지배할 수는 없다. 세계범위 즉 제일 깊은 속에 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두

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웨슬레는 특수 섭리(Particular providence)를 인정하며 특수섭리를 떠나서 일반섭리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이란 것은 그 어느것이냐 특수한 것이 몇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은 일반이란 하나도 그 예를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웨슬레는 말한다. 전체라함은 여러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을 말함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부분이 없으면 전체도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섭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Cannon P. 137—174)

(38 페이지에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가지며 눈물을 흘리며서 회개 를 촉구할 수 있다. 설교자의 사명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천사는 할수 없는 대 임무이다. 천사는 기질이 없다. 천사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로 전달할때 개인 개인의 기질을 알고 거기 적합한 설득 방법이 필요하다. 설교자는 인간이지 천사는 아니다. 고로 설교자에는 여러가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 물론 누구 한사람이 어떤 기질만 순수히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은 혼합적이나 특히 어느 사람이 어떤 기

질을 많이 갖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마치 인간의 얼굴이 천차만 별이지만 그 특징으로 두어 종류의 형(型)에 분류하는 것과 같다. 설교자는 기질 때문에 말씀을 그릇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말씀이 뒤에 숨기고 기질과 성격이 전면에 나타난 경우 그것을 말씀의 설교라고 결코 말할수 없다. 설교에 개성이 없는 설교는 빌려온 설교이다. 그러나 인간적 기질로서의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의 설교자라고 말할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